



“민형배 지지” 전남·광주지역 대학교수와 연구자, 전문가들이 1일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제공>



“김영록 지지” ‘(사)남도의 빛’ 회원 300여명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광주 선거사무소를 찾아 1만600명의 지지자 명단을 전달하고 김 예비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 ‘3강 새판’ 짠 본경선...막판 ‘세 규합’ 사활 건다

##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D-1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이 후보 간 연쇄적인 ‘합종연횡’으로 3강(強)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막바지 지지층 결집과 의연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강기정·신정훈 후보에 이어, 민형배·주철현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경선 구도는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강기정·신정훈 후보는 지난달 30일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직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민형배·주철현 후보 역시 1일 정책연대와 민후

辛·姜 이어 閔·朱까지 잇따른 ‘합종연횡’

김영록, 독자 행보 속 지지층 확장 총력

지지선언·정책 경쟁 치열...표심 쟁탈전

부동·중도층 흡수 관련 민심 향배 ‘주목’

보로의 단일화를 공식화하며 세 확장에 나섰다.

김영록 후보는 타 후보들의 단일화 흐름과 별개로 독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토대로 중도층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 간 합종연횡은 경선 판도를 단순히 3강 구도로 재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자 구도에서 분산됐던 표심이 단일화를 통해 압축되며 판세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후보가 중도·부동층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

느냐에 따라 판세는 막판까지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이후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직능단체와 지역 조직 등을 중심으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의연확장에 나서는데 동시에 단일화로 형성된 지지 기반을 실제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단일화 효과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역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지지층 이탈 가능성과 후보 간 지지 기반 차이 등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한 지지층 합산을 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막판 판세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경선 탈락 후보의 지지층과 조

직이 어느 후보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선 투표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치열한 3강 구도 속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과 정책 경쟁을 병행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광주지역 대학교수와 연구자, 전문가 1천명이 참여한 지지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통합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최적의 지도자는 ‘검증된 현장 경험과 의정 실적’을 갖춘 민형배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김영록 후보 역시 각계각층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사)남도의 빛’ 회원 300여명은 1일 김 후보 광주 선거사무소를 찾아 1만600명의 지지자 명단을 전달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사)남도의 빛’ 이득은 회장은 “전남과 광주 미래 100년을 선택하는 중요하고 뜻 깊은 선거”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역량으로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준비된 리더’는 김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후보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의 단일화 효과 극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아동·가족·다양성·장애인을 핵심 축으로 한 ‘5대 포용·미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 경력단절 없는 여성도시, 24시간 공공돌봄, 장애인 ESG 경제 모델 등을 추진하고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적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본경선이 3·5일 3일간 진행되는 만큼 각 후보 진영의 세 규합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판세를 선불리 예상하기 힘들어 치열한 생존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신정훈·강기정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일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함께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6차 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내일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

신 의원은 이어 무안국제공항 재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책임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이 정상화되기 전



까지 공백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만큼 광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국내선 취항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은진 기자

##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실행단계 구체화 박차

### 통합 일정·국비 확보 대응 방향 논의 조직·법규·행정체계 단계별 전략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시·도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도 정책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식 협의기구로 양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과제 발굴과 단계별 이행안 설정, 쟁점 조정 및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식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 공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워크숍 결과 보고, 국비 확보 공동 대응 방향 등을 보고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정책 비교·분석 체계를 마련해 통합 이후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정체성·상징성을 담은 임시

상징물 제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별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일정과 조직 구성, 법규 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현안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통합은 조직, 재정, 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수반하는 대규모 과제인 만큼 시·도는 단계별 실행 전략과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 준비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시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GTCI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순해보임협회